

성령의 은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여러 은사들을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

자연적 은사

야고보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말했다(약 1:17). 사람이 가진 타고난 좋은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지혜와 지식과 재조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출 31:2-6).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롬 12:6-8), 이런 것들은 다 자연적인 은사들이다.

초자연적 은사

그러나 초자연적 은사도 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 중에는 예언, 방언, 병고침 등의 초자연적 은사가 있다(고전 12:8-10).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확증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본다. 성경 역사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한 수단이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였다(히 2:3-4).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행 2:43; 5:12), 사도 바울은 기적 행함을 사도의 표라고 말하였다(고후 12:12).

그런데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적 은사들은 사도시대 이후에는 사라졌다. 이것은 교회가 경험한 바이었고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적 은사들의 증지를 가르쳐왔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가 사라진 까닭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는 그 독특한 목적 때문이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독특한 목적인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전달과 확증은 사도시대에 신약성경의 기록이 완성됨으로써 성취되었다. 요한계시록 22:18-19는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성경에 충족히 기록되었음을 증거하였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수천 년 동안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 방식이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후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것이 구약성경이었다. 모세에게 주셨던 기적들은 그 후에도 반복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에게 계시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후시대에 전달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둘째는 그 일시적, 초보적 성격 때문이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한 온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며 초보적이었다. 고린도전서 13:8-12는 그것들이 일시적이며 부분적이고 초보적이며 눈겨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며, 특히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온전한 것’은 신약성경을 가리킨다고 본다. 초자연적 은사들에 비하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하고 온전한 계시의 책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거두셨다고 보는 것이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비계목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비계목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일단 건물이 다 지어져 완성되면 비계목들은 철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시대에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사라졌다고 본다.

은사운동 비평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들과 목사들은 방언, 예언, 병고침 등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를 은사주의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은사주의 견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주장은 성경의 완성에 모순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족하고 최종적인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 이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신조이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과 동일한 내용을 계시하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계시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시대 후 1900년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내면적 활동을 통해 그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새로운 계시 활동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주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눅 16:31)고 말씀하심으로 성경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충족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셨다. 또 주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 22:18-19에서 이 예언의 책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명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자는 없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거두신 은사를 다시 주실 수 있다. 그러나 1900년 동안 거두어 가신 것은 그의 섭리의 방식이었다.

사도 시대 이후 기독교 역사는 기적 행함의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한 역사이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였다(고전 1:22-23). 중생과 회개의 내면적 기적은 늘 있었지만, 외적 기적은 오랫동안 사라졌었다. 비상한 경우, 기도의 응답으

로 병고침을 받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라고 보인다.

하나님께서서는 충족한 성경의 말씀으로 일해 오셨다.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변화된 삶을 위해 충족한 도구이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성경말씀을 통한 성령의 잔잔한 내면적 활동들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었고, 신자들은 성경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만족을 누렸다.

그러므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계속을 주장하는 은사운동은 성경의 완성, 즉 성경의 충족성과 종결성에 모순되며 또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도 반대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고, 성경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순종이다.

둘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 시킨다.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 체험이 아니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에 근거한 새로운 삶이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전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전 1:22-23). 또 사도 시대의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에 비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 예언 등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의 인격과 삶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또 진리대로 사는 바른 삶을 강조해 왔다. 그것이 옛 길이며 건전한 길이다.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이다. 고린도교회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소유한 교회이었지만(고전 1:7) 영적으로 어린아이이었다(고전 3:1). 영성의 표는 어떤 은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인격과 삶에 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영성의 표나 척도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성령 은사 경험보다 바른 인격과 삶을 더욱 중시한다. 예수께서는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못했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7:22-23). 또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이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였다(살후 2:9-12).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전하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도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 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6:31). 교회의 참된 부흥은 오직 성경의 바른 강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의 주장은 그 실재성이 의심된다.

첫째, 계시와 예언에 대해, 요한계시록 22:18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라고 말하였으므로, 오늘날 성경 외에 계시와 예언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방언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인데, 오늘날 방언 현상은 외국어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것 같다. 오늘날의 방언은 언어적 요소들이 부족하고 또 방언과 통역이 부자연스럽고 불일치하게 보인

다는 것이 방언 연구가들의 일반적 평가이다. 또 방언 현상은 역사상 기독교 이단 종파에도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 밖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방언 현상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방언 훈련은 인위적이며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방언 현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 오히려, 비평가들은 오늘날의 방언 현상이 가짜이거나 심리적 현상이거나 심지어 마귀에게서 기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병고침에 대해서도, 성경에서의 병고침의 사례들은 즉각적이고 비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주장되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또 병고침의 현상 자체가 성령의 일임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병고침의 현상은 기독교 밖의 신비주의적 집단들에서도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오늘날 초자연적 은사들의 실재성이 의심된다.

넷째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교회 연합운동과 함께 가고 있다. 그들은 바른 교리들이나 교제의 원리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들의 견해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더욱 보인다.

우리는 사도시대에 주셨던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적 은사들이 그 후 시대에 중단되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오늘날의 은사운동이 현대교회의 부흥의 표가 아니고 영적 어두움과 혼란의 현상이며 마귀의 역사라고 본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주장하고 심지어 사도적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다 거짓 목사들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은 오늘날 만연한 은사주의 사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